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서 본 북한 경제동향*

김양희 | 북한학 박사(기획재정부 사무관) | yang275@korea.kr

I. 서론

사회주의적 경제체제가 확립된 이후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경제건설의 기본정책 노선으로 삼았다. 이에 북한은 원료와 자원을 가능한 내부에서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을 꾀하는 전략으로 경제체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무역 부분에서 고립되었고 경제침체는 심화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워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 확대를 통한 무역의 다양화전략을 내세웠다.

‘자립적 민족경제노선’과 ‘대외무역’의 개념이 상반된 것 같지만 김일성이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결성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라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면 우리가 여유있게 생산하는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바꿔와야 한다”고 교시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대외무역은 상충하지 않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¹⁾

이 같은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시작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강조하는 한편, 대외무역의 중요성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에서 대외무역의 목적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며 이는 수입무역에 의해 직접적으로 실현된다고 말한다.²⁾ 또한 수입무역을 어떻게

* 본 연구는 2017년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이며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밝힌다.
1)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편, 『경제사건』, 평양: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69, pp541~542.
2) 최영욱, 『사회주의 대외무역에서 수입구조의 개선』, 『경제연구』, 200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32.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작동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무역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³⁾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은 자립경제, 원료의 국산화 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직접 생산했을 때 실리가 보장되는 것만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이 밖의 생활필수품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⁴⁾ 이에 북한은 석유나 식량 등 부족한 자원은 물론이고 경공업 제품이나 원료 등도 수입을 통해 내부 수요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중앙집권적 계획제도하에서 체제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통제 및 관리의 수단 중 하나로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 무역법에서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으로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고 이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으로 대외무역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부의 개혁 개방 압력 속에서 북한은 내부결속과 체제유지를 위해 폐쇄적인 계획경제를 유지하고자 했고, 이는 대외무역의 통제로 나타났다. 실제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2003년 북한 당국이 종합시장 개설을 허용하면서 국가에 의해서도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이 되었고, 북한의 기관, 단체, 기업소들까지 적극적으로 무역에 나서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무역권한권리인 ‘와크’권을 통해 전체 무역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⁵⁾

북한에서 무역이 국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본고에서는 북한경제 변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특히 북한의 수입품목에 주목했다. 북한에서의 수입은 북한 당국이 허용하고 주민들의 요구 속에서 발생하는, 북한 내부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의 수입품목 수는 적어도 북한경제 유지에 필요한 식량, 에너지, 산업 등 최소한의 중요 물자의 수만큼은 되어야 할 것⁶⁾이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는 북한 경제의 변화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10년간 북한의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양상을 엿보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7~16년까지 최근 10년으로 한정하고, 동기간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북한의 수입품목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UN의 Comtrade 데이터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3) 리명숙, 「현 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03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p.34.

4) 리명숙, 위 논문, p.35.

5) 북한에서는 2002년 7.1조치 시행을 계기로 무역의 분권화 조치가 추가로 취해졌다. 『조선신보』는 “지난 시기 조선에서 무역활동은 전문가관만이 담당, 수행했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개별적인 공장·기업소들도 필요에 따라 무역성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무역활동을 벌일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도했다(2003. 9. 22). 기사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개별 공장 등은 자율적으로 무역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모두 무역성 등 국가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6) 이석 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3, p.75.

II. 최근 북한 무역 동향

1. 북한 대외무역 추이

북한의 대외무역은 1980년대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의 우호가격제로 추진되다가 1990년대 초반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위축돼, 1990년대 중반 무역총액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전의 절반 수준인 20억달러의 규모로 정체했었다.⁷⁾ 그러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북한은 제3국과의 대외무역 추진 등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무역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게 된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UN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2006년에 이미 사회주의권 붕괴 직전의 무역 규모(42억달러 정도)를 넘어섰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009년 잠시 금액이 축소됐으나 곧이어 상승하기 시작해 2013년에 최대 금액인 80억 200만달러를 기록했다.⁸⁾ 이후 2014년에는 74억 6,400만달러, 2015년에는 65억 7,900만달러 등으로 잠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지난 10년간의 수치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GDP는 2007년 143억 7,500만달러를 기록했다가 2008년과 2009년 각각 133억 3,700만달러, 120억 3,500만달러 등 잠시 감소하기도 했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4년에는 173억 9,600만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162억 8,3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북한의 무역의존도 역시 2008년에는 5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으나 지난 2015년에는 40% 정도의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무역규모에서 총 수입액 중 중국과의 수입교역 부분의 비중은 2007년 44.1%였다가 2009년에는 63%를, 2011년에는 83%를 돌파했고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86.9%로 최고점을 찍었다. 최근 들어서는 수치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8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상위 5개 주요 수입 상대국과의 교역 비중은 수입의 경우 2007년에 이미 80%를, 2011년부터는 90%를 상회하여 대부분의 수입이 주요 수입상대국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KOTRA, 『1996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1997 참조.

8) 2009년 대외무역액이 축소된 이유는 최대 수출품인 광물성 생산품의 수출이 감소된 데 이어 대부분 품목의 수입 감소로 인해 무역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성 생산품의 수출물량은 증가했으나 국제시세 등의 영향에 의해 가격이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년 북한대외무역액이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은 광물성 생산품과 섬유생산품의 수출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었다(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9, 2013년 각년호).

2. 수출입 추이

북한 수출입의 특징은 전 기간 동안 북한의 수입규모가 수출규모를 훨씬 앞지른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수출과 수입액 사이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황에 놓여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원료 확보를 위해 수출보다 수입을 우선시하는 북한은, 수출을 수입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에 북한은 최근 외화벌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오랜 경제침체와 생산 기술의 저하로 1차산품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수출액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 소폭 하락했고 이어 2013년에는 최고액(36억 3,100만달러)을 기록했다. 이후 북한 수출액은 하향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29억 100만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금액은 더 크지만 그 추이는 수출액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다만 수출액이 2011년 대비 2012년 소폭 하락한 것과 달리 수입액은 상승한 것이 다를 뿐이다. 이런 이유로 수출액과 수입액 격차가 가장 큰 2013년의 무역 총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앞서 설명한대로 이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의 북한 무역수지(2억 5,900만달러 적자)는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것과 같이 품목 수도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생산능력의 제한으로 수출품목이 한정된 데 반해 수입품목 수는 산업과 주민 수요로 인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입품목 수는 일부 예외년도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입 대상 국가 수도 줄어들었다.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역의 다각화 정책을 펼쳤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무역의 상위 10개 품목을 HS 2단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무역액 기준으로 모두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성 연료와 에너지는 북한의 수출품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수입품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무역총액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등의 에너지를 수입해야하는 북한의 광물성 연료와 에너지 수입액은 2007년에는 12억 7,800만달러, 2008년에는 17억 5,900만달러에 달했으나 지속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2016년에는 2억 9,70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 원자재 붐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광물자원 수출을 늘려올 수 있었다. 또한 대중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무연탄이다.⁹⁾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품목은 2013년 이후 무역액 상위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이다. 의류부문은 수입과 수출 모두 상위권에 올리고 있는데, 편물 등을 주로 수입하지만 수출에서는 편물을 제외한 의류와 편물제 등이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는 의류 원자재를 중국 등에서 들여와 재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위탁인가공형식의 산업이 발달한 것을 의미한다.¹⁰⁾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이 급증한 것은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원가 경쟁력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중국 섬유업체들은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에서 제작한 완제품을 받는 가공무역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북한의 광물무역과 관련해서는 남진욱, 「북한의광물자원수출유형분석: 무역통계를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2016년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참고.

10) 최장호는 2002~15년 북한과 한국, 일본, 중국의 통계를 활용하여 2006년 일본과 2010년 한국의 대북 금수조치가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보세무역구를 통과하여 수출하는 우회무역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 의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 총우회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대부분 기간동안 중국 동북 북·중 국경지역의 보세구역에 수입하는 의류 품목들인 HS코드 61번과 62번 중 99% 이상은 북한산이었으며, 이는 같은 관세구역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수출되는 HS코드 61번, 62번류(하부단위 포함) 품목들이 실제로는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가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회무역, 즉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의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그 절대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이 의류가공업에 비교우위가 있어 중국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 등지로 우회무역을 활발히 진행 중임을 추정 한 바 있다(최장호 외,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p.4~5).

<표 2-1> 북한 수입 상위 10품목

(단위: 백만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1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278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759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758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030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828
2	84류 보일러·기계류	181	26류 광, 슬래, 회	307	84류 보일러·기계류	198	26류 광, 슬래, 회	271	84류 보일러·기계류	313
3	26류 광, 슬래, 회	180	84류 보일러·기계류	193	85류 전기기기·TV·VTR	176	84류 보일러·기계류	270	85류 전기기기·TV·VTR	283
4	10류 곡물	118	72류 철강	162	87류 일반차량	116	85류 전기기기·TV·VTR	218	87류 일반차량	233
5	85류 전기기기·TV·VTR	87	85류 전기기기·TV·VTR	142	61류 의류(편물제)	98	87류 일반차량	167	10류 곡물	128
6	72류 철강	83	29류 유기화합물	112	26류 광, 슬래, 회	91	72류 철강	155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16
7	29류 유기화합물	68	61류 의류(편물제)	91	72류 철강	90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90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11
8	40류 고무와 그 제품	64	10류 곡물	86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78	29류 유기화합물	81	31류 비료	105
9	87류 일반차량	64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86	24류 담배	72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79	72류 철강	104
10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63	87류 일반차량	80	10류 곡물	68	10류 곡물	69	26류 광, 슬래, 회	10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1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949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860	85류 전기기기·TV·VTR	449	85류 전기기기·TV·VTR	357	85류 전기기기·TV·VTR	297
2	84류 보일러·기계류	325	84류 보일러·기계류	321	84류 보일러·기계류	329	84류 보일러·기계류	272	87류 일반차량	255
3	85류 전기기기·TV·VTR	310	85류 전기기기·TV·VTR	275	87류 일반차량	231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269	84류 보일러·기계류	252
4	87류 일반차량	241	87류 일반차량	258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231	87류 일반차량	198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202
5	10류 곡물	169	40류 고무와 그 제품	165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99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75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80
6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42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56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67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52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75
7	29류 유기화합물	135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46	61류 의류(편물제)	115	72류 철강	118	61류 의류(편물제)	120
8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30	73류 철강제품	107	40류 고무와 그 제품	115	15류 동식물성유지	107	72류 철강	99
9	40류 고무와 그 제품	108	29류 유기화합물	103	15류 동식물성유지	114	03류 어패류	102	03류 어패류	79
10	72류 철강	98	72류 철강	101	72류 철강	112	61류 의류(편물제)	98	15류 동식물성유지	78

자료: UN Comtrade Database.

III. 북한수입의 산업 및 용도별 분석

1. 산업구조별 분석

북한에서는 무역에 대해 산업발전을 위한 원료 확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¹¹⁾ 실제 북한 당국은 “수입무역을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원료와 자재 그리고 기계설비를 대주는 문제이다”라고 밝혔다.¹²⁾ 이처럼 북한의 수입은 북한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품을 산업별로 분류해서 분석해보는 일은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 수입의 산업별 분석을 위해서 국제적인 호환성이 확보된 HS 코드를 기초로 산업을 재분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고일동¹³⁾ 등은 산업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산업을 이루는 기초단위 품목을 HS 2단위 수준에서 결정해 산업-품목(HS 코드) 연계표를 만들었고, 본고에서는 이를 활용해 북한 수입을 산업별로 분석했다.

북한의 전체 산업별 수입액은 2007년(31억 2,000만달러) 이후 2013년(43억 6,400만달러)에 가장 높았고 이후 소폭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2007년과 비슷한 금액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2013~14년에는 광산은 수입액이 감소했지만 농림수산, 화학·플라스틱·고무, 섬유·가죽,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섬유·가죽 부문의 수입액은 2013년 중국과의 위탁무역 등에 힘입어 2007년 대비 3배 이상 수입액이 늘었고, 기계·전기전자 부문도 북한의 경공업 산업 육성¹⁴⁾ 등에 힘입어 수입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화학·플라스틱·고무, 철강·금속 부문은 2012년을 전후로 있었던 북한의 건설 붐에 의해, 농림수산부문의 시장 확대에 의한 북한 주민의 수익증대로 소비수준이 상승한 것 등으로 인해 2007년 대비 수입액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광산부문의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석탄의 수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관련 산업도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1) 사회주의사회에서 대외무역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그것은 수입무역에서 생산수단의 수입을 기본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최영욱, 「사회주의 대외무역에서 수입구조의 개선」, 『경제연구』, 200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32.

12) 리명숙, 「현 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6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p.34.

13) 앞의 책, p.21.

14) 김정은은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려면 농업 전선과 함께 경공업 전선에 힘을 집중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라며 10년 만에 개최된 경공업 대회에 직접 참석해 육성연설을 통해 경공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조선중앙통신』, 2013. 3. 19).

〈표 3-1〉 산업별 수입액

(단위: 백만달러)

산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림수산	440	430	449	408	495	677	627	666	529	400
광산	1,521	2,150	892	1,341	1,002	1,032	970	381	406	292
화학·플라스틱·고무	297	404	310	377	504	583	611	527	471	413
섬유·가죽	232	411	434	374	518	613	739	841	692	741
목재·펄프·종이	61	67	49	51	58	68	78	89	91	80
철강·금속	177	278	214	285	263	270	310	319	281	213
기계·전기전자	364	457	525	708	888	949	940	1,074	884	837
잡제품	28	80	66	57	75	86	89	127	147	92
합 계	3,120	4,276	2,939	3,600	3,803	4,279	4,364	4,024	3,501	3,068

주: 1) 고일동·김상기·이재호,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09, p.21을 참조하여 작성.

2) HS 2단위 기준 품목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99류(기타)는 제외.

자료: UN Comtrade Database.

2. 기술수준별 분석

북한의 수입액 중에서는 공산품 수입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전체 수입액 중 공산품의 수입액 비중은 2007년 64.2%였으나 2008년 71.2%, 2015년 81.6%까지 늘었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80.9%에 이른다. 이에 공산품의 수입품 분석이 북한 경제변화 동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KOTRA가 밝힌 분류기준에 근거해 북한의 수입 공산품을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다.¹⁵⁾ 이에 근거한 북한의 수입액 중 공산품 수입액은 〈표 3-2〉, 〈표 3-3〉과 같다. 전체 공산품 업종 중 수입액이 많은 순서는 <중고위기술> <저위기술> <중저위기술> <고위기술> 순이다. 수입액이 가장 많은 중고위기술은 2007년 4억 9,156만달러를 수입했으나 2012년에는 11억 8,035만달러까지 수입액이 증가했고 이후 2016년에는 9억 1,048만달러로 수입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위기술 중 화학섬유 업종은 2007년에는 화학원료·제품(1억 5,164만달러)보다 낮은 수입액(8,567만달러)을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이를 역전해 화학원료·제품(1억 4,020만달러)보다 높은 수입액(2억 4,482만달러)을 기록하였다.

또한 자동차, 기타운송기기 수입액의 증가도 눈에 띈다. 자동차는 2016년 수입액(2억 886만달러)이 2007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으며 기타운송기기의 2016년 수입액(2,413만달

15) 북한의 산업 업종을 기술수준으로 구분해보면 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고위기술 수준에는 의약품, 우주항공, 전자통신, 정밀계측·사무용기기 등이 속하고 중고위기술 수준에는 화학원료·제품, 화학섬유, 일반기계, 특수목적기계, 전기기기·장비, 자동차, 기타운송기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저위기술 수준에는 석유가공·코크스,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조선, 자전거 등이, 저위기술에는 음식료품·담배, 가죽·모피, 섬유, 의류·섬유제품, 목재·가구, 종이·인쇄, 기타 공산품 등이 속한다.

리)은 2007년 대비 746% 증가한 것이다. 이 외에 전기기기·장비도 2016년 수입액(1억 3,114만달러)이 2007년 대비 125% 증가했다.

저위기술부문도 2007년 수입액이 3억 2,903만달러였으나 2014년에는 9억 3,064만달러까지 증가했고, 2016년에는 7억 2,562만달러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기술 중 가장 높은 수입액을 차지하는 업종은 섬유부문이다. 섬유부문은 2007년 수입액이 8,967만달러에서 2008년 1억 8,781만달러, 2009년 2억 3,026만달러, 2012년 3억 864만달러, 2014년 4억 4,077만달러로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16년 3억 9,705만달러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가죽·모피 제품도 2016년 수입액이 2007년 대비 115% 상승했으며, 의류·섬유 제품도 488% 증가했다. 북한 노동력 중심의 섬유 임가공으로 인해 섬유 및 의류 가공 업종의 수입액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 외에도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액이 목재·가공 부문도 157%, 종이·인쇄 부문도 62% 증가했다. 이는 업종별로 수입이 늘고, 관련 산업도 최근 원재료의 수입 등으로 10여년 전과 달리 좀 더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저위기술부문은 수입액이 2007년(10억 3,231만달러)보다 2008년(16억 4,340만달러)에 증가했으나 이후 2016년(6억 1,197만달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위기술부문의 수입액 감소를 이끈 것은 석유가공·코크스 업종의 수입액 감소인데, 2007년(7억 5,836만달러) 대비 2016년 수입액(1억 2,730만달러)이 8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위기술부문에서도 자전거 업종은 2016년 수입액이 2007년 대비 536% 늘어났으며 플라스틱과 비금속광물 부문도 각각 185%, 184% 증가했으나 전체 중저위기술부문의 수입액 감소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고위기술부문은 전체 공산품 중 수입액이 아직은 가장 적지만 2007년(1억 1,777만달러) 대비 2016년 수입액(3억 921만달러) 성장률은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2014년의 전체 공산품 중 고위기술부문 수입액은 4억 1,080만달러로, 2007년 대비 249% 증가다.

고위기술부문의 수입액이 대폭 상승한 것은 전자통신 업종에 의한 것으로 2007년 수입액은 7,768만달러였으나 2014년 3억 4,289만달러까지 증가했고, 이후 2016년 수입액이 줄긴 했으나 그 액수는 2억 6,198만달러로 2007년 대비 3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주항공 업종은 2016년에는 10만달러 정도 수입을 했으나 연도별로 증감이 커 2013년에는 2,325만달러, 2015년에는 2,296만달러를 수입하기도 했다.

비중별로 살펴보면 고위기술은 공산품 수입액 전체에서 2007년에는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0년에 10.1%를 돌파하고, 2015년에는 12.6%, 2016년에는 12.1%에 이른다. 고위기술의 성장을 이끈 것은 전자통신 업종이다. 전자통신 업종은 전체 공산품 중에서 2007년에 3.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4년에는 10.4%를, 2016년에는 10.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섬유(15.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중고위기술부문도 전체 공산품 중 비중이 2007년에는 24.9%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31.0%, 2011년에는 42.9%까지 늘었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6년에는 35.6%로 증가했다. 중고위기술부문은 특정 업종의 비중이 높지 않고 10% 이내에서 업종별로 비슷한 것이 특징이며 화학섬유와 자동차 업종의 성장세가 전체 중고위기술의 비중 확대를 가져왔다.

중저위기술부문에서는 자전거와 플라스틱 등의 전체 공산품 수입액 중 비중이 2007년 대비 2016년 각각 400%, 119% 증가했으나, 전체 공산품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0.1~7% 정도로 작다. 중저위기술은 2007년 당시 공산품 전체 중에서 비중이 절반 이상(52.4%) 이었고 2008년도 53.3%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2009년은 32.9%, 2011년 27.3%, 2013년은 25.5%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도 23.9%에 그쳤다. 석유가공·코크스 업종의 비중 감소는 전체 중저위기술 부문의 비중 축소로 이어졌다. 북한의 공산품 수입은 중저위기술 업종이 중심이었으나 고위기술이나 중고위기술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위기술 부문은 2007년 수입액 비중이 전체 공산품 수입액 비중의 16.7%였으나, 2008년에 20.1%로, 2009년과 2016년에 각각 28.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기술 중 성장을 이끈 것은 섬유 업종이었다.

2016년 기준, 전체 북한 공산품 중 수입비중이 높은 업종은 섬유(15.5%)>전자통신(10.2%)>화학섬유(9.6%)>자동차(8.2%)>플라스틱(7.0%)>철강(6.1%)>화학원료·제품(5.5%)>전기기기·장비(5.1%) 등이다. 그러나 2007년에 수입비중이 높았던 업종은 단연 석유가공·코크스(38.5%)였다. 이 외에 철강(5.9%), 음식료품·담배(5.4%) 등이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5% 이내로 수입 업종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16년 북한의 공산품 수입은 특정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 업종이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섬유, 전자통신, 화학섬유, 자동차 등의 수입 확대는 북한의 경제 및 산업구조에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 기술수준별 공산품 수입액

(단위: 천달러)

기술수준	업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고위기술	의약품	17,404	13,432	24,751	24,841	19,314	28,622	28,746	30,715	34,046	19,147
	우주항공	1,314	263	254	16	228	708	23,248	1,057	22,958	102
	전자통신	77,682	124,997	152,515	209,818	217,973	233,223	213,536	342,886	279,406	261,982
	정밀제작·사무용기기	21,372	26,924	27,058	40,025	24,956	30,954	50,402	36,140	25,819	27,976
	소재	117,772	165,616	204,578	274,700	262,471	293,507	315,932	410,799	362,229	309,206
	화학원료·제품	151,640	259,348	171,420	206,557	289,018	304,895	261,685	182,538	172,697	140,201
	화학성유	85,669	97,754	104,251	138,713	207,010	216,215	244,343	263,271	215,437	244,818
	일반기계	83,321	82,551	74,074	93,637	134,604	137,578	148,449	135,110	107,342	102,749
	특수목적기계	51,840	61,471	66,355	82,243	113,740	107,123	91,542	93,249	71,282	58,576
	전기기기·장비	58,320	68,700	78,316	103,839	130,255	162,011	147,040	218,469	175,220	131,138
중고위기술	자동차	57,922	75,820	111,512	155,988	218,936	220,163	231,946	189,315	159,045	208,862
	기타운송기기	2,852	8,772	9,587	10,781	18,460	32,368	13,608	26,346	14,988	24,131
	소재	491,564	654,416	615,514	791,758	1,112,021	1,180,354	1,138,613	1,108,298	916,011	910,475
	석유가공·코크스	758,362	1,240,793	375,460	645,559	255,691	311,672	215,569	198,150	209,613	127,295
	플라스틱	63,081	85,971	78,035	78,035	115,820	142,036	155,513	199,134	175,048	179,617
	비금속광물	22,585	31,014	27,299	26,663	44,642	49,590	65,488	83,080	85,802	64,106
	철강	116,487	209,554	145,874	210,703	171,333	174,500	208,394	184,454	181,818	155,739
	비철금속	54,086	49,383	50,536	58,384	73,157	73,771	76,655	103,582	75,689	38,076
	금속제품	6,365	19,170	17,203	16,043	18,836	21,247	24,478	30,486	23,791	18,972
	조선	7,344	5,401	833	4,545	17,198	12,190	3,682	13,724	2,894	2,684
중저위기술	자전거	4,005	2,118	2,602	8,940	11,633	16,818	20,226	29,350	28,908	25,484
	음식료품·담배	1,032,314	1,643,404	697,842	1,048,872	708,312	801,823	770,005	841,961	783,564	611,974
	기국·모피	16,677	40,630	23,245	23,865	41,211	51,999	67,321	70,854	40,274	35,842
	섬유	89,672	187,806	230,257	186,019	238,975	308,641	381,657	440,770	380,784	397,050
	의류·섬유제품	9,003	51,210	40,586	17,162	13,400	22,352	30,541	46,129	39,764	52,944
	목재·기구	16,879	19,517	15,087	18,530	23,272	27,571	34,179	50,958	45,591	43,147
	종이·인쇄	38,960	56,077	42,087	42,559	47,838	58,201	64,494	70,043	69,112	63,097
	기타 공산품	50,793	99,395	63,224	38,701	59,772	57,469	64,665	74,843	106,331	53,796
	소재	329,031	619,652	601,161	440,356	508,401	671,727	797,468	930,644	807,730	725,619
	공산품 전체	1,970,680	3,083,088	2,119,095	2,555,686	2,591,205	2,947,412	3,022,018	3,291,702	2,869,534	2,557,274
전체수입액	3,157,367	4,328,460	2,995,816	3,624,480	3,813,180	4,295,314	4,371,089	4,051,055	3,514,526	3,159,763	

자료: UN Comtrade Database.

3. 용도별 분석

본고에서는 북한 수입품목의 용도별 분석을 위해 UN comtrade database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중 HS코드 대신 BEC 코드¹⁶⁾에 의한 분류를 활용해 경제적 용도에 따라 구분했다.¹⁷⁾

〈표 3-4〉와 〈표 3-5〉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BEC 2단위에 따라 북한의 용도별 수입구조를 정리한 내용이다.

북한의 주력 수입품인 음식료품(BEC 11, 12)은 전체 용도별 수입액 중 비중이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연료(BEC 31, 32, 북한의 경우 주로 석유)는 2014년에 1차, 가공 연료 모두 급감하다가 2015년 가공 연료부문에서 수입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는 1차산품과 가공품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산품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15년 수입금액과 용도별 수입액 중 비중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가공품의 경우 수입액이 2008년, 2010년에는 2억달러를 간신히 넘기다 2014년에는 3억 6,000만달러에 이르는 등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하고는 용도별 수입품 중 비중이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료는 1차산품과 가공품 모두 2007년에 비해 2016년 현재 수입금액과 용도별 수입액 중 비중 모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와 연료 등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산업용 원자재·중간재, 자본재, 수송기기, 소비재 등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용도별 수입액 중 비중과 수입금액 등이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산업용 중간재의 경우 수입금액은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으나 용도별 수입액 중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본재도 2014년 수입금액이 5억 5,000만달러에 이르러 2007년 수입금액(1억 6,000만달러)에 비해 3배가 넘는 정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용도별 수입액 중 비중은 가장 높았던 2014년에도 13.6%를 기록해, 2007년(5.1%)에 비해 2.67배 상승하는 정도에 그쳤다.

자본재 부품은 금액으로 보면 2013년, 2015년, 201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2007년(7,832만달러)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도별 수입액 중 비중은 지난 10년간 큰 변동 없이 2% 내외를 기록했다.

16) BEC는 경제적 용도에 따른 분류를 보여주는 코드로 수입품목을 음식료, 산업용 원자재·중간재(industrial supplies), 연료, 자본재 및 그 부품, 수송기기, 소비재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로 또 2~3개로 세분화해서 나타낸다.

17) 본래의 BEC 코드에서 옥수수(HS 1005)가 식품가공업의 원료로서 BEC 12, 즉 산업용 원자재(1차)로 분류되지만 김석진 등은 북한의 실정에 맞게 이를 BEC 11(음식료(1차))에 포함시켰다(김석진, 「제조업 분야 북중무역 분석」,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3, p.182).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발표하는 북한 식량수급량 추정 등의 자료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본고에서도 BEC 12 옥수수를 BEC 11에 포함시켰다.

승용차의 수입액은 2007년(785만달러)에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250만달러, 4,519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금액으로는 대폭 상승했다. 반면에 전체 용도별 수입품 중 비중에서 보면 아직 1% 미만인 상황에서 2007년(0.2%)에 비해 2008년 2배 상승했으며,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용도별 수입품중 0.9~1.1% 사이의 비중을 보여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4년, 2015년, 2016년 용도별 수입품 중 비중은 각각 0.7%, 0.6%, 0.8%를 기록했다.

기타 수송기기와 수송용 수송기기 부품도 수입금액과 용도별 수입액 중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타수송기기는 2007년 수입액이 5,241만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2억 1,805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1억 7,000~1억 8,000만달러 선으로 소폭 하락했다. 용도별 수입액 중 비중은 2007년에는 1.7%였으나 2009년 2.7%, 2010년 3.5%, 2011년 5.2% 등 상승추세에 있다가 2012년 이후로는 5% 정도를 유지하고 2016년에는 6.9%로 상승했다.

수송기기 부품의 수입금액도 2007년(3,352만달러)부터 꾸준히 상승해 2014년 최고액인 1억 2,729만달러를 기록하고 이후 2015년 1억 645만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수송기기 부품도 2011년 이후 용도별 수입액 중 비중이 2% 정도를 차지하다가 2014년 이후 3%로 상승했다.

아울러 식품을 제외한 소비재는 내구소비재, 반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 반내구재의 용도별 수입액 중 비중은 2007년에 비해 금액과 비중 등이 각각 약 3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내구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도 용도별 수입액과 비중이 2007년에 비해 각각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북한의 용도별 수입금액 추이

(단위: 천달러)

코드	범주명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53	61	62	63	7		합계
		음식료 (1차)	음식료 (가공)	산업용 원자재 (1차)	산업용 중간재 (가공)	연료 (1차)	연료 (가공)	자본재	자본재 부품	승용차	기타 수송 기기	수송 기기 부품	내구 소비재	반(半) 내구 소비재	비내구 소비재	기타		
2007	71,760	293,924	358,526	590,538	519,549	755,818	160,922	78,321	7,849	52,409	33,523	49,074	59,524	88,139	30,079	3,149,955		
2008	78,567	217,134	515,628	1,099,830	516,831	1,018,152	227,148	82,059	16,588	66,551	31,200	48,160	192,481	164,386	38,957	4,313,673		
2009	74,137	247,576	260,790	789,147	381,386	327,712	263,344	85,448	33,811	81,811	32,146	48,966	168,279	179,541	21,660	2,995,754		
2010	57,523	215,191	360,085	1,017,373	384,215	616,707	387,769	82,989	32,000	127,648	55,462	53,874	95,918	112,502	25,380	3,624,637		
2011	88,434	249,959	226,585	1,278,136	571,320	249,115	450,185	104,033	38,148	200,120	71,206	59,105	99,963	116,575	10,295	3,813,180		
2012	95,574	287,698	226,368	1,408,551	636,003	309,188	472,454	100,954	42,498	214,140	87,350	78,539	140,077	178,692	17,065	4,295,152		
2013	112,232	331,743	214,431	1,486,195	642,956	214,005	451,251	88,360	45,194	218,045	90,603	88,139	184,274	195,748	7,913	4,371,089		
2014	148,586	361,829	157,599	1,509,012	27,765	192,695	550,797	107,305	26,928	188,500	127,293	146,235	246,391	233,385	26,736	4,051,055		
2015	141,031	295,363	88,436	1,341,092	53,726	202,086	446,661	99,875	21,630	176,699	106,451	146,592	188,927	196,888	8,971	3,514,427		
2016	128,696	204,422	43,892	1,219,502	71,974	124,425	383,576	70,914	25,718	212,365	100,649	120,515	186,402	177,497	5,264	3,075,813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표 3-5〉 북한의 용도별 수입비중 추이

(단위: %)

코드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53	61	62	63	7	합계
범주명	음식료 (1차)	음식료 (가공)	산업용 원자재 (1차)	산업용 중간재 (가공)	연료 (1차)	연료 (가공)	자본재	자본재 부품	승용차	기타 수송 기기	수송 기기 부품	내구 소비재	반(半) 내구 소비재	비내구 소비재	기타	
2007	2.3	9.3	11.4	18.7	16.5	24.0	5.1	2.5	0.2	1.7	1.1	1.6	1.9	2.8	1.0	100.0
2008	1.8	5.0	12.0	25.5	12.0	23.6	5.3	1.9	0.4	1.5	0.7	1.1	4.5	3.8	0.9	100.0
2009	2.5	8.3	8.7	26.3	12.7	10.9	8.8	2.9	1.1	2.7	1.1	1.6	5.6	6.0	0.7	100.0
2010	1.6	5.9	9.9	28.1	10.6	17.0	10.7	2.3	0.9	3.5	1.5	1.5	2.6	3.1	0.7	100.0
2011	2.3	6.6	5.9	33.5	15.0	6.5	11.8	2.7	1.0	5.2	1.9	1.6	2.6	3.1	0.3	100.0
2012	2.2	6.7	5.3	32.8	14.8	7.2	11.0	2.4	1.0	5.0	2.0	1.8	3.3	4.2	0.4	100.0
2013	2.6	7.6	4.9	34.0	14.7	4.9	10.3	2.0	1.0	5.0	2.1	2.0	4.2	4.5	0.2	100.0
2014	3.7	8.9	3.9	37.2	0.7	4.8	13.6	2.6	0.7	4.7	3.1	3.6	6.1	5.8	0.7	100.0
2015	4.0	8.4	2.5	38.2	1.5	5.8	12.7	2.8	0.6	5.0	3.0	4.2	5.4	5.6	0.3	100.0
2016	4.2	6.6	1.4	39.6	2.3	4.0	12.5	2.3	0.8	6.9	3.3	3.9	6.1	5.8	0.2	100.0

자료: UN Comtrade Database.

IV. 결론

지난 10년간 북한의 수입품목을 분석해보니 농림수산, 화학·플라스틱·고무, 섬유·가죽,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공산품 수입은 중저위기술 업종 중심에서 고위기술이나 중고위기술 위주로 재편되고 있었다.

소비재 중에서는 운송수단과 관련 있는 승용차, 기타 수송기기 등과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산업용 중간재는 북중교역과 관련한 의류 제조업의 중간재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경제개혁으로 사유화가 확대되었고, 억압정책을 펼치지 않아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북한 당국은 정책적으로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인해 꼭 필요한 식량이나 에너지 같은 필수 물자 외에도 거의 모든 부분의 수요가 늘면서 수입이 확대되었다. 지난 10년간 북한 수입의 확대는 북한 산업과 주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쳐 북한 사회가 이전 김정일 시대보다 더 정보화되고, 먹는 문제도 나아졌을 것이며, 생활수준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일부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북한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그 무엇보다도 크게 반응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작동되지 않은 이유는 1차 핵실험 직후 일본의 대북교역 금수조치 시 북한은 한국과 중국으로 교역국을 바꿨고 5.24조치,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남북경협이 중단되었을 때는 북중교역으로 선화하면서 제재효과가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¹⁸⁾ 북한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본과의 무역 대신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에 힘을 쏟았고, 한국과의 무역이 중단되자 중국과의 무역에 더욱 주력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0년간 북한의 대외무역 중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고 북중간 가공무역이 발달하게 됐다. 지난 2016년까지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의류가공 관련 수입품 등은 북중 가공무역 확대의 산물이다. 또한 수송기기, 핸드폰 등의 수입증가도 물류네트워크가 약한 북한시장의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막지는 못했지만 북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다. 결의에는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18) 임수호, 「최근 북한동향과 대북제재 효과」, 『제4회 통일금융컨퍼런스-한반도 안보위기 타개 및 남북교류 방안』, 연합인포맥스, 2017, p.8.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안이 담겼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식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까지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실제 북한의 수출품 1위인 석탄은 수출 금지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액이 나타나지 않는 등 대북제재는 북한 무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발표된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난 2016년까지 나타난 무역수치들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북한의 대외교역을 위축시키고 외화 획득에 차질을 주면서 북한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2007년에는 크지 않았던 의류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된 사례가 있는 만큼, 북한 당국은 우선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중국이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북한산 철광석의 수출에 주력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대북 철광석 수입액은 8,604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1% 상승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금수조치에 대비해 석유를 비축하기 시작하여, 정부 관료의 관용차도 휘발유 공급을 제한하며, 시내 석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최근 대북제재로 인한 연료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평양 시내에 공유자전거를 도입해,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주변에 50여개 소를 설치하기도 했다.¹⁹⁾ 이처럼 북한은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노력이라면 의류산업 외의 다른 노동력 집약형 산업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위기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관련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북한의 여러 정치외교적 변수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북한의 산업구조는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19)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년 11월 15일.

참고문헌

- 김석진, 『무역 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 서울: 산업연구원, 2007.
- _____, 「제조업 분야 북중무역 분석」,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3, p.182.
- 남진욱,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유형 분석: 무역통계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9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리명숙, 「현 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3년 제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편,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69.
-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임수호, 「최근 북한동향과 대북제재 효과」, 『제4회 통일금융컨퍼런스-한반도 안보위기 타개 및 남북교류 방안 발표자료집』, 연합인포맥스, 2017.
- 『조선신보』, 「변혁의 현장에서-성황을 이룬 평양국제상품전람회」, 2003. 9. 22.
- 최영욱, 「사회주의 대외무역에서 수입구조의 개선」, 『경제연구』 2004년 제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 최장호 외,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 대체 효과」, 『KIEP 정책연구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2006년 한중무역구조 분석 - 가공단계별, 기술수준별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2007.
- KOTRA, 『1996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1997.
- _____,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2006~16 각호.
- <웹사이트>
- KOTRA 해외시장뉴스-북한 정보(<http://news.kotra.or.kr>, 접속일: 2017. 9. 23).
- UN Comtrade data(<https://comtrade.un.org/>, 접속일: 2017. 9. 24, 2017. 10. 24, 2017. 11. 3).